대한 간호학회지 제 4 권 2 호
Vol. 4, *No.* 2, *May*, 1974

妊婦의 恐怖와 個人 및 環境變因의 相互關係에 關한 硏究

鄭 松 子

高麗大學校 大學院 看護學科

<지도 : 河 英 洙 교수>

目 次

Ⅰ. 緖 論
1. 趣旨 및 必要性
2. 硏究의 目的
3. 硏究의 制限點
4. 槪念模型
5. 假 說
Ⅱ. 硏究方法 및 材料
1. 硏究方法
2. 調査對象 및 方法
3. 硏究道具 및 說明
4. 統計的 處理
Ⅲ. 結果 및 考察
Ⅳ.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英文抄錄

Ⅰ. 緖 論

1. 趣旨 및 必要性

産前看護의 가장 중요한 課業은 妊婦로 하여금 肉體的으로나 心理的으로 安全하고 健全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그러나 傳統的으로 産前看護는 妊婦의 肉體的인 看護를 보다 重視하고 心理的인 看護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肉體的 健康이란 心理的 健康을 떠나 있을 수 없고, Stokvis[1]가 指摘한 바와 같이 精神과 肉體的인 狀態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妊娠으로 因한 肉體的 外傷뿐 아니라 心理的인 外傷이 同時에 重要視되며 妊婦를 위한 産前看護도 肉體的 看護에 못지 않게 心理的 看護를 重要視 해야 할 것이다. 妊娠中 妊婦의 心理的 狀態는 여러가지 要因에 依해 影響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妊娠에 대한 恐怖感의 發生이다.

原來 恐怖는 制止性 情緖 또는 防禦的 情緖[2]로서 自身의 安全에 威脅이 있거나 對應策이 없을 때, 또는 危機를 豫感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個人의 自身과 安全感, 그리고 適應을 沮害하는 要因이 됨은 勿論 肉體的 疾患의 發生과 그 治療의 沮害要因이 되며 妊婦의 情緖的 變化는 自身에게는 難産과 産痛, 胎兒에게는 活動과 發達에 영향을 주고 急激한 母體의 情緖狀態는 最惡의 境遇 胎兒死亡, 腦의 畸型, 早産現狀을 招來한다고 指摘하고 있다[3,4] 妊娠中 不安, 恐怖感의 除去는 分娩中에 鎭靜, 鎭痛劑를 使用하는 것 以上의 安定分娩이 될수 있고 나아가서는 分娩時의 痛症減少[5]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더욱 重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전 산초, 내외과 간호학, 수문사, 1971, p. 9
2) Cole, L.,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Halt Rinehart and Winston, 1961, p. 264.
3) 羅炳述, 發達心理學, 大學出版社, 1969, pp. 69~70.
4) 金聖泰, 發達心理學, 法文社, 1973, pp. 55~56.
5) 河英洙, 산소아과 간호학, 수문사, 1973, p. 89.

이와 같은 恐怖는 個人의 過去經驗, 人間關係, 現在狀態 등 여러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妊婦의 恐怖에 對해 알려진 바는 妊婦가 恐怖感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그 恐怖가 妊婦의 性格, 過去經驗, 人間關係, 社會經濟的 變因 등과 어떤 關係가 있는지에 對해 전연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研究의 目的

妊婦의 妊娠恐怖와 個人 및 環境變因의 相關關係에 關한 本研究는 위와 같은 事實에 着眼하여, 1) 恐怖에 對한 理論的 背景과 妊婦의 恐怖에 對한 旣存文獻을 調査分析하고, 2) 妊婦의 個人變因(性格, 妊娠 및 出産經驗, 妊娠月齡) 및 環境變因(社會經濟的 階層, 家族構成, 家族關係)의 槪念模型을 밝히며, 3) 妊婦의 恐怖가 妊婦의 個人 및 環境變因과 어떤 關係에 있는지를 統計的으로 分析하고, 4) 이상의 資料에 터하여 妊婦에 대한 合理的인 看護對策의 方向을 모색하여 母性保健向上에 寄與코자 하는 것이다.

3. 研究의 制限點

1) 本 研究에서 使用된 妊娠恐怖檢査는 研究者가 妊娠恐怖의 內容을 정하고 이 內容을 測定할 수 있는 問項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標準化되지 못하고 信賴度도 檢證이 되지 못했다.

2) 本研究에서 使用된 一般不安檢査는 兒童用을 研究者가 任意로 修正하여 成人에게 適用했다.

3) 標集 및 研究方法에 있어서 原則的으로 各個人에 對한 從斷的인 分析을 하는 것이 理想的이나 本 研究에서는 時間의 制限 때문에 非妊婦, 妊娠初半期에 있는 妊婦, 妊娠 後半期에 있는 妊婦를 各各 다른 사람으로 標集했다.

4. 槪念模型

本 研究에서 使用될 여러가지 變因은 妊婦의 恐怖(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와 性格, 妊娠 및 出産經驗, 妊娠月齡, 社會經濟的 階層, 家族構成, 家族關係 등으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妊婦의 恐怖

妊婦가 妊娠으로 因하여 갖게 되는 妊娠恐怖와 막연히 가지는 不安으로 選定했다.

妊娠恐怖와 不安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妊娠恐怖

A. 胎兒에 對한 恐怖

a. 胎兒의 異常에 對한 恐怖

b. 胎兒에 對한 期待의 成就如否에 대한 不安

c. 胎兒의 未來에 對한 恐怖, 不安

B. 妊婦 自身에 對한 恐怖

a. 機能的인 身體變化에 對한 恐怖

b. 外觀的인 身體變化에 對한 恐怖

c. 社會的 關係의 變化에 對한 恐怖

d. 經濟的 困難에 對한 恐怖

e. 막연한 恐怖, 不安

2) 一般不安[6,7]

여기서 一般不安의 尺度는 Sarason의 "The Genernal Anxiety Scale for Children을 약간 修正해서 使用했기 때문에 不安의 內容도 上記 尺度에 包含된 要因들로 보았다. 즉 一般不安은 高所, 廣場, 閉所, 鮮血, 水, 不潔, 暗黑, 光線, 毒物, 特定한 動物, 高音, 苦痛 등에 대하여 막연히 느끼는 恐怖를 包括하는 意味로 使用했다.

2. 性格(Personality)

性格은 人性, 人格 등과 같은 意味로 쓰이고 있으나 아직 그에 대하여 合意를 본 分明한 定義가 내려져 있지 않고 그 要因도 多樣하게 나누고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 性格은 "골던 性格 프로필"[8]과 金基錫의 "一般性格檢査"[9]가 測定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5가지 要因으로 보았다.

1) A要因—支配性(Ascendancy)

이 要因은 支配, 服從의 程度를 表示한다. 支配性이 強한 사람은 對人關係에 있어서 自信을 가지고 自己主張을 내세우며, 집단상황에서 積極的인 役割을 하고 또한 獨立的인 決定과 行動을 할 수 있다.

支配性이 弱한 사람은 집단에서 消極的 役割을 하고 集團의 參加者라기 보다 放觀者인 편이고 大體로 自己에 대한 自信이 없고, 他人이 自己를 領導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나치게 他人의 말이나 忠告에 귀를 기우리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2) R要因—責任性(Responsibility)

責任性이 強한 사람은 責任을 신중히 생각하고 맡은 일에 집착하여 이를 完遂하고, 忍耐性이 많으며 意志가 強하다. 責任性이 弱하면 興味없는 일에는 들어붙어 있지를 못하며 極端의 境遇에는 無責任하거나 責任廻避를 하게 된다.

3) E要因—情緖的 安定性(Emotional Stability)

6) Sarason, S.B.,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hn Wilay and Sons, Inc., 1960.

7) 許炯, 不安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69.

8) Gordon, L.V., Gordon Personal Profile and Gordon Personal Inventory, N.Y., Harcourt, Brace and World, 1963.

9) 김기석, 일반성격 검사, 서울, 코리아 테스팅센타, 1959

情緖的 安定性이 높다 함은 精神的으로 均衡이 잘 잡혀 있으며 感情이 安定되고 比較的 근심이 없고 神經質이 아닌 性格을 말한다. 情緖的 安定性이 낮은 사람은 過度한 精神的 不安, 心理的 緊張, 神經過敏의 特性을 가지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感情의 動搖가 甚하다.

4) S要因—社交性(Sociability)

社交性이 높다 함은 다른 사람과 같이 놀고, 같이 일하기를 즐기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社交的이다. 反面 社交性이 낮은 사람은 社交的인 接觸을 制限하고, 親知가 적고, 極端의 境遇에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廻避하게 된다.

5) T要因—自信感—劣等感

自信의 性格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傾向을 優越感이라 하고 反對로 自信의 性格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傾向을 劣等感이라고 한다.

3. 妊娠 및 出產經驗

妊娠 및 出產經驗이란 과거 임신했던 회수, 流產回數, 死產回數, 出產回數를 모두 包含하는 말이다.

1) 第一初妊婦 : 과거에 임신했던 경험이 全然 없었던 妊婦
2) 第二初妊婦 : 過去에 妊娠을 했으나 모두 流產 또는 死產되고 아직 順產(解產)을 해보지 못한 妊婦
3) 第一經產婦 : 過去에 妊娠을 했으나 流產 또는 死產을 한번도 하지 않고 모두 解產한 妊婦
4) 第二經產婦 : 過去에 妊娠을 했고 또 流產 또는 死產과 解產經驗을 모두 한 妊婦

4. 妊娠月齡

妊娠月齡이란 妊婦가 妊娠 이후 現在까지의 個月數를 意味하는 말로서 妊娠 直後부터 6個月(24週)까지는 妊娠 前半期, 妊娠 6個月 以後(24週 以上 : 但 24週는 包含되지 않음) 分娩前까지를 妊娠 後半期로 分類하였다.

5. 社會經濟的 階層

社會經濟的 階層이라 함은 社會的으로 認定을 받고 있는 名譽와 羨望의 程度와 經濟的인 生活의 豊饒度에 따라 나눈 等級을 意味한다. 本 硏究에서는 妊婦의 男便의 學歷, 男便의 職業, 家庭의 財產 및 收入을 調査하고, 각각의 項目에 대하여 有意한 點數를 주어 그것을 合計한 總點에 依하여 社會經濟的 階層을 分類하였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 社會經濟的 階層點數는 連續的인 意味를 가질 수 있으나 必要에 依하여 몇 개의 집단으로 묶을 때는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1) 上流層 : 社會的으로 名譽와 羨望이 가장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한 生活을 하는 階層을 말한다.
2) 中流層 : 社會的인 名譽와 羨望이 普通이고 경제적으로도 普通의 生活을 하는 階層 또는 社會的 名譽와 羨望은 높으나 經濟的 豊饒度가 낮거나, 社會的 名譽와 羨望은 낮으나 經濟的 豊饒度가 높은 階層을 말한다.
3) 下流層 : 社會的으로 名譽와 羨望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生活을 하는 階層을 말한다.

6. 家族構成

1) 大家族 : 男便 또는 妊婦의 父母 및 兄弟姉妹와 같은 집안에 居住하는 形態를 말한다.
2) 中家族 : 男便 또는 妊婦의 父母와 같이 居住하거나, 男便 또는 妊婦의 兄弟姉妹와 같이 居住하는 形態를 말한다.
3) 小家族 : 다른 親族이 없이 妊婦 夫婦와 그들의 直系卑屬만으로 構成된 家族을 말한다.
4) 기타 : 이상의 세가지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경우.

7. 家族關係

家族關係라 함은 가족 相互間의 人間關係를 意味한다. 따라서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서는 家族 相互間의 愛情과 응집력을 中心으로 하여 두가지로 나누었다.

1. 肯定的 關係 : 家庭의 構成員이 서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뜻과 行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關係를 말한다.
2. 否定的 關係 : 家庭의 구성원이 서로 接觸하기를 꺼려하며, 서로 혐오감을 갖고, 相對方의 뜻과 行動을 否定的으로 받아들이는 關係를 말한다.

5. 假 說

假 說 1 : 妊婦는 非妊婦보다 一般不安程度가 더 높을 것이다.
假 說 2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各 性格要因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 說 3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妊娠 및 出產經驗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 說 4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妊娠月齡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 說 5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社會經濟的 階層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 說 6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家族構成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 說 7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家族關係와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Ⅱ. 研究方法 및 材料

1. 研究方法

本 研究에서 使用된 研究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文獻研究

恐怖에 關한 一般的인 理論과 妊婦의 恐怖에 關한 理論的 背景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分野의 文獻을 分析 綜合하였고 恐怖 및 不安에 關한 先行研究文獻을 分析 活用 하였다.

2) 조사지 실시

一般不安程度를 測定하기 위한 "一般不安檢査"와 妊娠恐怖를 잴 수 있는 "妊娠恐怖檢査"를 作成하고 妊娠 및 出產經驗, 妊娠月齡, 社會經濟的 階層, 家族構成, 家族關係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人性을 測定하기 위해서는 金基錫의 "一般性格檢査"를 使用하였다. 以上의 一切의 檢査와 질문지를 하나의 조사지 셑으로 만들어 研究對象者를 面談하고, 直接 記入케도 하였다. 단 非妊婦의 境遇는 一般不安檢査紙만을 주어 記入케 하였다.

2. 調査對象 및 方法

1) 對象의 選定

(1) 妊婦 : 本調査의 對象은 1973年 10月 23日부터 11月 5日까지 12日 사이에 서울市內 7個病院(高麗大學校 友石病院 : 57名, 國立醫療院 : 38名, 연세의료원 : 32名, 中部市立病院 : 30名, 백병원 : 20名, 東大門保健所 : 20名, 성동보건소 : 18名)에 산전 간호를 받기위해 외래에 登錄된 妊婦中에서 無選標集方法으로 215名을 選定하였다. 標集된 215名의 學歷別, 年齡別 分布는 〈表 1〉과 같다.

〈表 1〉 妊婦의 敎育程度 및 年齡別 分布

敎 育 別	實數(%)	年 齡 別	實 數 (%)
大學院卒業	4 (1.8)	20세 이하	1 (0.4)
大學(校) 〃	78(36.3)	21～25	56(26.0)
初級大學 〃	19 (8.8)	26～30	115(53.5)
高 校 〃	60(28.0)	31～35	35(16.3)
中學校 〃	34(15.8)	36～40	6 (2.8)
國 校 〃	17 (7.9)	～ ･ ･	2 (1.0)
無 學	3 (1.4)		
計	215(100)	計	215(100)

(2) 非妊婦 : 高麗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 3, 4學年 學生 189名의 家族中 現在 妊娠해 있지 않은 可妊年齡의 婦人들 중에서 無選標集方法으로 86名을 選定하였고, 病院 看護員 中에서 亦是 無選標集方法으로 10名을, 그리고 서울 도봉구 수유 2동 일대의 家庭主婦 8名을 追加 선정하였다. 標集된 104名의 學歷別, 年齡別 分布는 〈表 2〉와 같다.

〈表 2〉 非妊婦의 敎育程度 및 年令別分布

敎 育 別	實數(%)	年 令 別	實 數 (%)
大學院卒業	5 (4.8)	20세이하	0 —
大學(校) 〃	32(30.8)	21～25	12(11.5)
初級大學 〃	18(17.3)	26～30	35(33.7)
高 校 〃	26(25.0)	31～35	32(30.8)
中學校 〃	17(16.3)	36～40	15(14.4)
國 校 〃	6 (5.8)	41～42	10 (9.6)
無 學 〃	0		
	104(100)	計	104(100)

2) 調査方法

(1) 妊婦 : 訓練된 調査班員을 各病院에 1名씩 配置시켜 조사지를 가지고 妊婦와 면담을 하게 하였으며 조사항목에 따라서 應答者로 하여금 直接 記入케도 하였다.

(2) 非妊婦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 學生들에게 조사지를 나누어 주고 자세히 說明을 해준 후 學生으로 하여금 調査對象者들에게 直接 說明케 한 후 調査紙를 記錄하여 가져오도록 하였다.

3. 研究道具 및 說明

1) 妊婦의 妊娠 恐怖 檢査

概念模型에서 밝힌 妊婦의 妊娠恐怖의 分類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40個의 문항을 作成했다.

이 문항은 妊婦가 느낄 수 있는 정서상태를 記述한 것이며 5段階 評定法으로 測定하였다(附錄 1 參照).

總 문항수는 40個로 각問項마다 체크한 點數를 合하여 恐怖의 총점으로 하였다.

2) 一般 不安檢査

一般不安檢査는 S. B. Sarason의 兒童用 一般不安檢査(GASC)를 若干 修正補完한 것을 使用하였다.

GASC의 채점은 每問項마다 1點씩을 주었으며 總點數는 45點이 된다. 獲得한 點數가 높을수록 不安의 程

度가 甚한 것을 나타내며 點數가 낮을수록 不安의 程度가 낮은것을 나타낸다.

3) 人性檢査

一般性格檢査에는 우리가 日常生活을 해 나가는데 가장 重要한 性格의 다섯가지면, 즉 A要因(支配性), R要因(責任性), E要因(情緒的 安定性), S要因(社交性), T要因(自信感一劣等感)을 包含시켜 測定하였다. (附錄 4 參照)

4) 社會經濟的 階層 調査를 위한 調査紙

社會經濟的 階層을 調査하기 爲한 조사지는 男便의 學歷 및 職業과 家庭의 財産 및 月收入을 調査하여 그것을 點數化 시켰으며 各 項目別 配點基準은 金泳謨[10]의 것을 參照하여 使用했다(附錄 2 參照)

5) 家族關係를 把握하기 爲한 調査紙

家族關係를 規定하는 變因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包含시켰다.

(1) 家族相互間의 交流(①對話 ②接觸 : 원한다, 꺼린다)
(2) 家族相互間의 愛情 (愛情一嫌惡)
(3) 家族相互間의 認定感 (肯定一否定)
(4) 家庭의 雰圍氣, (溫和一冷冷)

調査紙에서 묻는 方法은 否定的인 方法으로 물어 첵크하게 했다. 採點은 첵크 안한 問項數를 家族關係點數로 表示했다. 그래서 點數가 높을수록 肯定的인 家族關係를 나타내고 點數가 낮을수록 否定的인 家族關係를 나타냈다.

4. 統計的 處理(Statistical treatment)

1) 假說 1, 2, 7에서는 比較 集團間의 相關關係를 보았다. 相關係數[11]는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算出方法을 適用했다.

2) 假說 3, 4, 5, 6에서는 比較 集團別 平均値를 내고 그 平均의 差의 意義度를 檢證하기 위하여 R.A.Fisher의 變量分析方法[12](analysis of variance)을 適用했다.

Ⅲ. 結果 및 考察

앞에서 設定한 假說을 檢證하기 위하여 妊婦 215名을 對象으로 妊娠 恐怖 및 一般不安 檢査를 實施하고 非妊娠婦 104名을 對象으로 一般不安 檢査를 實施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假 說 1 : 妊婦는 非妊婦에 比해 一般不安의 程度가 더 높을 것이다.

妊婦와 非妊婦의 一般不安 檢査 結果는 表 3과 같다. 즉 妊婦集團과 非妊婦集團의 平均點數는 똑같이 18.58點으로 何等의 差가 없어 假說 1은 否定되었다.

〈表 3〉 妊婦와 非妊婦의 一般不安

區 分	N	M	S D	
妊 婦	215	18.58	8.77	C R=0
非 妊 婦	104	18.58	7.59	P>0.05

一般的으로 妊婦는 妊娠으로 因해 非妊婦보다 不安을 더 갖게 된다고 생각해 왔으며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몇 사람의 先行研究가 있었다.

Hirst와 Strousse는[13] 妊娠된 100名의 妊婦中 적어도 75名이 妊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더 많은 不安을 갖는다고 하였고, Newton[14]은 妊娠中에는 不安 및 恐怖感이 增加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Eastman[15]이 Klein 等을 引用한 바에 依하면 妊婦가 애기를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間에 不安感을 가지지 않는 例는 없었다고 報告하였는데 本 研究에서는 反對되는 結果가 나타났다.

假 說 2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各 性格要因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1) 妊娠恐怖와 各 性格 要因

妊婦의 妊娠恐怖와 各 性格要因과의 相關係數는 〈表 4〉와 같다.

10) 金泳謨, 서울市의 社會階層과 階級構造에 關한 研究, 金敏元 博士 回甲記念 論文集, 1969, p. 613.

11) 상관관계의 의의도 검증공식은 $\sigma ro=\frac{1}{\sqrt{N-1}}$, 정범모, 교육심리 통계적 방법, 배영사, p. 179, 1967.

12) 정범모, 前揭書, p. 213.

13) Hirst, J.C. and Strousse, F., The Origin of Emotional Factors in Normal Pregnant Women, American Journal of Medical Science, No. 96 (1938), pp. 95~99. 引用한 河英洙, 韓國 初妊婦의 心理狀態에 關한 研究, 中央醫學, 第14卷 第4號(1968), p. 322.

14) Fitzpatrick, E, and others, Maternity Nursing, Philadelpia and Toronto, J.B. Lippincott Co., 1966, pp. 131~204.

15) Eastman, N.J., Williams Obstetrics,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Inc., 1956, pp. 346~364를 인용한 河英洙, 前揭書, pp. 321~322.

〈表 4〉 姙娠恐怖와 各 性格要因과의 相關係數

恐怖 \ 性格要因	A	R	E	S	T
姙 娠 恐 怖	-.04	-.22**	-.21**	-.07	-.15*

** 1% 수준에서 의의 있음.
* 5% 수준에서 의의 있음.

(1) 姙娠恐怖와 A要因(支配性) : 姙娠恐怖와 支配性間의 相關係數는 -.04로 거의 相關이 없었다.

(2) 姙娠恐怖와 R要因(責任性) : 姙娠恐怖와 責任性間의 相關係數는 -.22로 責任性이 弱한 사람일수록 姙娠恐怖가 높은 편이었다.

(3) 姙娠恐怖와 E要因(情緖的 安定性) : 姙娠恐怖와 情緖的 安定性 間의 相關係數는 -.21로서 情緖的 安定性이 높은 妊婦일수록 姙娠恐怖가 낮은 便이었다.

(4) 姙娠恐怖와 S要因(社交性) : 姙娠恐怖와 社交性間의 相關係數는 -.07로서 거의 相關이 없었다.

(5) 姙娠恐怖와 T要因(自信感-劣等感) : T要因과 姙娠 恐怖間의 相關係數는 -.15로서 거의 相關이 없었다.

2) 一般不安과 各 性格要因

一般不安과 各 性格要因과의 相關係數는 〈表 5〉와 같다.

〈表 5〉 妊婦의 一般不安과 各 性格要因의 相關係數

性格要因	A	R	E	S	T
一 般 不 安	-.19**	-.25**	-.25**	-.19**	-.23**

** : 1% 수준에서 의의 있음

(1) 一般不安과 A要因(支配性) : 妊婦의 一般不安과 支配性間의 相關係數는 -.19로 거의 相關이 없었다.

(2) 一般不安과 R要因(責任性) : 妊婦의 一般不安과 責任性 間의 相關係數는 -.25로 責任性이 약한 사람일수록 一般不安이 높은 편이었다.

(3) 一般不安과 E要因(情緖的 安定性) : 妊婦의 一般不安과 情緖的 安定性 間의 相關係數는 -.25로 情緖的 安定性이 낮은 사람일수록 一般不安이 높은 편이었다.

(4) 一般不安과 S要因(社交性) : 一般不安과 社交性間의 相關係數는 -.19로 거의 相關이 없었다.

(5) 一般不安과 T要因(自信感-劣等感) : 一般不安과 T要因과의 相關係數는 -.23으로 自信感이 많은 妊婦일수록 一般不安은 적고, 劣等感이 많을수록 一般不安은 높은 편이었다.

假 說 3 : 妊婦의 姙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姙娠 및 出產經驗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1) 姙娠恐怖와 出產經驗

〈表 6〉 妊婦의 姙娠 및 出產經驗別 姙娠 恐怖

변인 \ 지수	N	M	SD
제 1 초임부	72	27.04	15.52
제 2 초임부	40	26.23	18.34
제 1 경산부	46	27.37	17.85
제 2 경산부	57	27.33	20.54

妊婦의 姙娠 및 出產經驗別 姙娠恐怖의 程度를 보면 〈表 6〉과 같이 初妊婦보다는 經產婦의 姙娠恐怖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變量分析을 해본 結果 〈表 7〉과 같이 $p > 0.05$로서 큰 意義가 없었다.

〈表 7〉 妊婦의 姙娠 및 出產經驗에 따른 姙娠恐怖의 差

變 散 源	自 乘 和	df	變量推定値	F
間	36.47	3	12.16	.04
內	69,505.23	211	329.41	
全 體	69,541.70	214		p>.05

2) 一般不安과 出產經驗

妊婦의 姙娠 및 出產經驗別 一般不安은 〈表 8〉과 같이 初妊婦보다는 經產婦의 一般不安이 若干 높은 편이었으나 意義 있는 差는 아니었다. 〈表 9〉

〈表 8〉 妊婦의 姙娠 및 出產經驗別 一般不安

변인 \ 지수	N	M	SD
제 1 초임부	72	18.07	8.49
제 2 초임부	40	17.35	8.37
제 1 경산부	46	20.20	10.01
제 2 경산부	57	18.77	8.12

〈表 9〉 妊婦의 妊娠 및 出産經驗에 따른 一般不安의 差

變 散 源	自 乘 和	df	變量推定値	F
間	201.46	3	67.15	.87
內	16,351.02	211	77.49	
全 體	16,552.48	214		p>.05

假 說 4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妊娠 月齡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1) 妊娠月齡別 妊娠恐怖

妊婦의 妊娠月齡別 妊娠恐怖를 보면 〈表 10〉과 같이 妊娠 前半期에 있는 妊婦의 點數가 妊娠後半期에 있는 妊婦의 妊娠恐怖 點數보다 6.41점이나 높게 나타났

〈表 10〉 妊婦의 妊娠月齡別 妊娠恐怖

지수 / 월령	N	M	SD	
妊娠前半期	50	31.96	21.01	CR=1.98
妊娠後半期	165	25.55	16.68	P<.05

다. 이것은 5%水準에서 意義있는 差로서 妊婦들은 妊娠後半期보다 前半期에 더 많은 恐怖를 느끼고 있음이 證明되었다.

2) 妊娠月齡別 一般不安

妊婦의 妊娠月齡別 一般不安을 보면 〈表 11〉과 같이 妊娠前半期에 있는 妊婦의 妊娠恐怖點數가 4.20점이며 높게 나타났다.

〈表 11〉 妊婦의 妊娠月齡別 一般不安

지수 / 月齡	N	M	SD	
妊娠前半期	50	21.80	8.28	CR=3.11
妊娠後半期	165	17.60	8.09	P<0.005

이것은 P<0.005로 매우 意義있는 差로서 모든 妊婦들은 妊娠前半期에 妊娠後半期보다 더 많은 不安感을 느끼고 있다는 事實이 證明되었다.

이러한 結果는 妊娠初期에 많은 妊婦들이 一時的으로 反對感情 兩立現象(*ambivalence feeling*)을 갖게 되나 妊娠中期(妊娠 4, 5, 6個月)에는 腹部가 增大되고 胎動을 느끼며 醫師와 看護員이 胎兒心音을 청취함에 따라 妊娠 初期의 막연한 幻想的인 妊娠槪念이 애기라는 實感으로 轉換되고, 自身이 妊娠했다는 事實을 시인하게 되며, 또한 애기에 대해서도 더욱 받아들이는 등 妊娠에 대한 積極的인 態度轉換을 보이는데서 起因되는 現象이라고 본다.[16]

그러므로 妊婦의 看護를 擔當하는 看護員은 이러한 妊婦의 妊娠中 특히 妊娠初期의 恐怖 및 不安에 對해 잘 理解하며, 妊娠過程에 대한 仔細하고도 科學的인 事實을 認識시켜 주고 醫師와 看護員이 母兒의 安全을 最大限保障하기 爲해 最善을 다한다는 것을 確言시켜 줄 必要가 있다.

假 說 5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社會經濟的 階層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1) 社會經濟的 階層別 妊娠恐怖의 差는 〈表 12〉와 같이 다소 차이가 나타났으나 변량분석을 해본 結果 〈表 13〉과 같이 意味가 없음이 證明 되었다(p>0.05).

〈表 12〉 妊婦의 社會經濟的 階層別 妊娠恐怖

지수 / 계층	N	M	SD
上 流 層	30	26.00	14.44
中 流 層	174	27.25	18.46
下 流 層	11	27.45	18.73

〈表 13〉 妊婦의 社會經濟的 階層別 妊娠恐怖의 差

變 散 源	自 乘 和	df	變量推定値	F
間	41.39	2	20.72	.06
內	69,419.10	212	327.45	
全 體	69,460.49	214		p>.05

2) 社會經濟的 階層別 一般不安

妊婦의 社會經濟的 階層에 따른 一般不安의 分布를 보면 〈表 14〉와 같이 妊婦의 一般不安은 上流層보다는 下流層으로 갈수록 약간 높게 나타나는 傾向을 보였으나, 意義가 없음이 證明되었다(p>0.05).

16) Hellman and Pritchard, Williams Obtetrics,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Inc, 1971, p.822

〈表 14〉 妊婦의 社會經濟的 階層別 一般不安

지수 / 계층	N	M	SD
上 流 層	30	17.90	9.13
中 流 層	174	18.57	8.64
下 流 層	11	20.45	9.55

한편 Hirst와 Strousse의 研究報告에 依하면 不安의 內容은 妊婦自身들이 처해있는 社會經濟的 環境에 依해 左右된다고 하며 社會經濟的 階層에 따라 不安의 程度가 다를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不安檢査의 總點 即 不安程度로만 보면 社會經濟的 階層間에 意義있는 差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研究報告와 反對되는 結果였다.

假 說 6 : 妊婦의 妊娠恐怖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家族構成과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1) 家族構成別 妊娠恐怖

妊婦의 妊娠恐怖와 家族構成과의 關係를 보면 大家族보다는 小家族으로 갈수록 多少 높게 나타나 보였으나, 〈表 16〉과 같이 $p>0.05$로 큰 意義가 없었다.

〈表 15〉 妊婦의 家族構成別 妊娠恐怖

지수 / 구성	N	M	SD
大 家 族	24	24.92	12.65
中 家 族	77	26.91	22.32
小 家 族	113	27.04	19.68

〈表 16〉 妊婦의 家族構成別 妊娠恐怖의 差

變 散 源	自 乘 和	df	變量推定値	F
間	89.09	2	44.54	.11
內	85,940.19	211	407.30	
全 體	86,029.28	213		p>.05

2) 家族構成別 一般不安

妊婦의 一般不安과 家族構成과의 關係를 보면

〈表 17〉 妊婦의 家族構成別 一般不安

지수 / 구성	N	M	SD
大 家 族	24	16.46	6.60
中 家 族	77	19.04	9.03
小 家 族	113	18.65	8.95

大家族보다는 小家族, 小家族 보다는 中家族에 있어 多少 높은 傾向을 보였으나 〈表 18〉과 같이 큰 意義가 없음이 證明 되었다. ($p>0.05$)

〈表 18〉 妊婦의 家族構成別 一般不安의 差

變 散 源	自 乘 和	df	變量推定値	F
間	124.65	2	62.32	.80
內	16 386.38	211	77.66	
全 體	16,511.03	213		p>.05

假 說 7 :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家族關係와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1) 妊娠恐怖와 家族關係

妊婦의 妊娠恐怖와 家族關係와의 相關關係는 家族關係가 좋은 妊婦일수록 妊娠恐怖는 낮은 편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

〈表 19〉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과 妊婦의 家族關係와의 相關關係

區 分	妊 娠 恐 怖	一 般 不 安
家 族 關 係	−.25**	−.32**

** 1% 水準에서 意義 있음.

2) 一般不安과 家族關係

또한 妊婦의 一般不安과 家族關係와의 相關係數에 있어서도 〈表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般不安과 家族關係間의 相關係數는 −.32로 家族關係가 좋은 妊婦가 좋은 妊婦일수록 一般不安은 낮은 편이었다.

〈妊婦의 恐怖感의 影響과 解消〉

妊婦의 恐怖는 妊娠에 따른 身體的 變化와 情緖的安定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이 相互 關聯되어 經驗하게 되

는 情緖를 말하며 Bloss[17] 는 妊娠中의 恐怖는 아주 흔한 것으로 그것은 心理的 根源(Psycho[illegible]ource)에 起因된다고 하였다.

Straus[18]는 妊婦의 恐怖의 根源에 대하여 妊娠期間에는 氣分의 變化가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은 눈에 띄는 身體上의 변화와 家族生活方式의 變化에 起因하는 것으로 妊婦는 더 내성적이 되며 전에 從事하던 일에 차츰 關心을 적게 가지게 된다. 이러한 內向은 한편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아이에게 關心을 갖게 하며, 한편으로는 身體的 或은 精神的인 缺陷이 있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애기에 관한 걱정과 함께 妊娠婦는 自身에 關한 恐怖를 갖는다. 사망율이 적다는 믿을 만한 研究結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出產時의 死亡에 대한 恐怖가 여전히 매우 팽배해 있다. 이러한 恐怖는 깊이 뿌리박힌 것이며 部分的으로는 未知의 經驗에 대한 恐怖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妊娠期間동안 어머니와 아이의 一致感에서 由來하며, 따라서 心理學的으로 出產이란 어머니에 依해서 自身의 一部 損失로서 經驗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Bloss[19]는 妊婦가 가지는 가장 흔한 문제중의 하나가 自身의 身體的 美 또는 性的魅力을 잃는데 대한 不安이라고 指摘하였고, Eastman[20]과 河[21]는 妊婦 自身에 대한 恐怖(妊娠中 自己健康에 대한 念慮, 죽음에 대한것, 分娩의 合併症, 혹은 時間을 맞춰서 病院에가서 분만하지 못할까봐, 또는 分娩時 痛症, 診療所나 病院에서의 處置, 其他 家事 및 經濟問題 혹은 家族關係)와 胎兒에 對한 恐怖感(流產의 旣往症 또는 經驗에서 오는 死產 및 胎兒 死亡에 對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遺傳에 對한 恐怖나 迷信에 依한 恐怖感)에 대해 보고 하였다

이와같은 妊婦가 경험하는 情緖는 임부 自身만이 아니고 胎兒에까지 많은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妊婦의 心理的 자극이 胎兒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假定은 胎兒와 母體가 臍帶를 通해서 모든 身體幾能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부터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Dunbar는 보고 하였으며 또한 母體와 胎兒는 하나의 기관으로 行動하며, 어떤 物質 뿐만이 아니라 소리와 같은 외부자극도 胎兒가 감지할수 있으며, 同時에 母體와 胎兒는 相互反應한다고[22] 하였다.

情緖는 이상과 같이 胎兒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身體的 變化[23](피부의 전기저항 감소, 혈액순환이상, 심계항진, 瞳孔散大, 타액분비 저하, 현기증, 전해질 불균형), 精神身體疾患[24](自律神經의 흥분, 심계항진, 고혈압, 홀몬분비 항진, 소화기능 저하, 천식, 피부병, 비대증), 生理過程[25](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흥분), 不適應 行動[26] (① 急性動搖 : an acute disturbance, ② 心理的 根源 : psychological in origin, ③ 意識的 經驗 : conscious experience ④ 表現的行動 : expressive behavior, ⑤ 內的反應 : internal responses, ⑥ 散漫한 行動 : diffused activity, ⑦ 打擊的 經驗 : traumatic experience) 등 정신기능[27](理性的인 活動 防害, 情緖疫病 : emotional plague; 성적긴장이나 정서적 긴장의 억제 지연으로 생기는 知覺과 論理的 推理의 심한 損傷을 뜻함)면에[28] 變化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人間이 自己에게 닥쳐오는 정서자극을 적절한 정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情緖가 人間에게 有益한 作用을 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大部分이 不合理한 情緖로써 安定을 沮害하는 作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사나 看護員들은 妊娠中(特히 初期)에 막연하게 가지는 妊婦의 恐怖感 및 不安感에 對해 잘 이해함은 勿論 妊娠中 身體的 看護에 못지 않게 心理的이고 精神的인 產前敎育과 相談을 하므로 그들에게 妊娠生理와 妊娠中 精神心理的 看護 및 安定을 도모하는데 必要한 知識을 알려 줄 必要가 있다. 또한 妊娠中에 모든 妊婦들이 產前看護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그 혜택을 받도록 啓蒙指導하는 일에 보다 많

17) Bloss, J. R., Causes of Fear among Obstetric Patients,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144. 1950, pp. 1358~1361
18) Straus, B. Mental Hygine i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58. 1956. pp. 314~316
19) Bloss, J. R. Ibid.
20) Eastman. N. J, and Hellman, L. M., Williams Obstetrics,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Inc, 1961. pp. 340~347.
21) 河英洙, 韓國 初妊婦의 心理狀態에 關한 硏究, 중앙의학, 제14권 제4호, 1968, pp. 321~322
22) Dunbar, F. P., psyshology of Pregnancy, Labor and the Puerperium, Green Hill, J. P., Obstetrics, W. B. Sounders, Co., 1965. p. 482
23) 정량은, 一般心理學, 法文社, 1973, pp. 191~192.
24) 上揭書, pp. 191~192
25) 上揭書, pp. 191~192
26) 허버트 · A · 케롤. Mental Hygine, 李南杓譯, 精神衛生, 敎育文化社, 1961, p. 42
27) 서봉연, 정서와 건전한 성격, 한국응용 심리학 협회편, 정신위생, 1972, p. 60.
28) 정량은, 前揭書, pp. 191~192.

은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며, 特히 妊婦의 呼訴를 傾聽하고 理解하며 當面한 問題를 解決해 주는 일이 時急함을 強調하는 바이다.

Ⅳ. 結論 및 提言

1. 結 論

1973年 10月 23日부터 同年 11月 5日까지 서울市內 5個病院(國立醫療院, 高麗友石病院, 白病院, 延世醫療院, 中部市立病院)과 2個의 保健所(東大門, 城東保健所)에 산전간호를 받기 위해 산과외래에 등록된 임부 215名과 可妊年齡의 非妊婦 104名을 對象으로 妊婦와 非妊婦의 一般不安程度를 調査比較하고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과 妊婦의 個人 및 環境變因과의 相關關係를 分析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妊婦와 非妊婦와의 一般不安은 有意한 차이가 없었다.

2.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과 妊婦의 各 性格要因과의 相關關係에 있어 妊娠恐怖와 R要因(責任性, r=−.22) 및 E要因(情緖的 安定性, r=−.21)의 相關係數는 얕은 逆相關을 나타내 이들 各 性格要因이 낮을수록 妊娠恐怖가 높은 편이었으나 A要因(支配性), S要因(社交性) 및 T要因(自信感)과는 거의 相關이 없었다. 妊婦의 一般不安과 性格要因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R要因(r=−.25) E要因(r=−.25) 및 T要因(r=−.23)과는 얕은 逆相關이 있어 各 性格要因이 낮을수록 一般不安이 높은 편이었으나 A要因과 S要因과는 거의 相關이 없었다.

3. 妊婦의 妊娠恐怖나 一般不安은 妊娠 및 出產經驗과 相關이 없었다.

4.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妊娠月齡과는 有意한 相關이 있어 임신 후반기보다 임신전반기에 임신공포 (CR=1.98, P<0.05)가 더 높았고, 一般不安(CR=3.11, P<0.005) 역시 임신 전반기에 더 높은 결과가 증명되었다.

5.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妊婦의 社會經濟的階層과 相關이 없었다.

6.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家族構成과 相關이 없었다.

7. 妊婦의 妊娠恐怖 및 一般不安은 家族關係와 相關이 없었다.

2. 提 言

1) 前述했던 바와 같이 妊婦와 非妊婦間의 一般不安의 程度는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先行硏究와는 相反되는 現象으로서 本硏究에서는 先行硏究와 本硏究 사이에 相反된 結果가 나타난 理由를 밝히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統制된 條件밑에서 綿密한 分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社會經濟的 環境에 의해 一般不安이 좌우된다는 先行硏究와 反對되는 結果가 나온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다 統制된 條件밑에서 綿密한 硏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本硏究에서 취급된 變因 外에도 妊婦의 恐怖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變因(例를 들면 過去의 成長經驗, 男便과의 關係)과 恐怖와의 關係를 더 究明하여 恐怖의 原因을 分明히 밝혀야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改訂 標準 職業分類, 1970

金璟姬, 韓國兒童의 不安形成 過程에 關한 一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5

金基錫, 一般性格檢査, 서울 : 코리아테스팅센타, 1959

金泳謨, 서울市의 社會階層과 階級構造에 關한 硏究, 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文集, 1969

金榮煥, 攻擊性과 不安 및 自我強度와의 關係,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9

金潤泰 外, 敎育心理辭典, 培英社, 1965

金恩雨, 韓國女性의 愛情葛藤의 原因硏究, 韓國硏究院 韓國硏究叢書, 第19輯, 1963

金聖泰, 發達心理學, 法文社, 1973

羅炳述, 發達心理學, 大學出版社, 1969

徐鳳延, 情緖와 健全한 性格, 韓國應用心理學會編, 精神衛生, 1972

李鎭淑, 心理學槪論, 乙酉文化社, 1959

尹泰林, 韓國人의 性格, 現代敎育叢書 出版社, 1964

任能彬, 動機와 情緖, 益文社, 1973

田山草, 內外科看護學, 壽文社, 1971

鄭良毅, 一般心理學, 法文社, 1973

鄭範謨, 敎育·心理 統計的方法, 培英社, 1967

河英洙, 產婦人科 看護學, 梨大出版社, 1971

——, 產小兒科 看護學, 壽文社, 1973

——, 韓國 初妊婦의 心理狀態에 關한 硏究, 中央醫學, 第4卷 第4號, 1968

허버트 A. 캐롤, Mental Hygiene, 李南杓譯, 精神衛生, 載東文化社, 1961

許 炯 : 不安이 學業成果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一硏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9

Bloss, J. R., Cause of Fear among Obstetric Patient, Journal of American Midical Association, Vol. 144, 1950

Cole, L.,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Dunbar, F., Psychology of Pregnancy, Labor and Puerperium, Green Hill J. P., Obstetrics, W. B. Saunders, Co., 1965

Eastman, N. J. & Hellman, L. M., Williams Obstetrics,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Inc, 1961

English, O. S. & Pearson Gerald, H. J., Emotional Problem of Living, New York; W. W, Nonton & Company, Inc., 1945.

Fitzpatrick, E. and others, Maternity Nursing, Philadelphia & Toronto; J. B. Lippincott Co., 1966

Garrison, K. C.,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Prentice, 1951

Gordon, L. V., Gordon Personal Profile and Gordon Personal Inventory, N. Y; Harcourt, Brace & World, 1963

Harris, C. W.,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The Mcmillan Co., 1960

Hellman & Prichard., Williams Obstetrics,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Inc., 1971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McGraw-Hill Book Co., 1950

Hirst, J. C. & Strousse, F., The Origin of Emotional Factors in Normal Pregnant Women, Amcrican Journal of Medical Science, 1938

Park, J., Emotional Reactions to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Vol. 62, 1951

Sarason, S. B.,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hn Willey & Sons, Inc., 1960

Straus, B., Mental Hygine in Pregnancy, A. J. N., Vol. 58, 1956

Tobin, S. M., Emotional Depression During Pregnancy Obstetrics & Gynecology, 10(1957)

Watson, J. B., Psychology, 1929

=Abstract=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ear During Pregancy and Person and Environmental Variables in Pregnant Women

Song Ja Chung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Young Soo Ha, professor>

Antenatal care is zoomed towards assisting the individual to achieve safe and wholesome state of health during pregnancy.

Nature of fear is assumed to be rooted to complex interaction between past experiences, human relationship and present state of health, however,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fear and the variables have not yet been ascertained.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fear of pregnanc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fear and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past experiences and paycho-social factors.

During the period from Octobor 23 to November 5, 215 pregnant and 104 non-pregnant women of similar chronological are group residing in Seoul were interviewed according to check-list by random. General anxiety test, general personality test and test for fear of pregnancy, family according to specific variables such as past experience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tructure of family, family relationship and month of pregnancy was done to the group of pregnant women. To non-pregnant group, general anxiety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with pregnant group.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Hypothesis 1; Degree of general anxiety will be higher in pregnant women compared to that of non-pregnant wome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anxiety of pregnant women and that of non-pregnant women. Therefore, hypothesis I is rejected.
2. Hypothesis 2; Fear of pregnancy and general anxiety will be correlated with personality factors. Through test for fear of pregnancy and general anxiety, a meager contra-correlation between fear and only two personal factors (R and E factor) is revealed but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ear and other personal factors (A,S, and T factor). Degree of fear of pregnancy tends to be higher in the group with low personality factors; responsibility and emotional stability, expect the correlation between ascendency, sociability, and confidence-inferiority, non-significant. Through general anxiety test, level of general anxiety tends to be higher in the group with low personality factors; responsibility, emotional stability, and confidence except ascendency and sociability, non- signifi- cant. Hypothersis 2 is partially supported.
3. Hypothesis 3; General anxiety and fear of pregnancy will be correlated with the past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Though general anxiety test and test for fear of pregnancy, non-significant difference is revealed by P>.05 level. Hypothesis 3 is rejected.
4. Hypothesis 4; General anxiety and fear of pregnancy will be correlated with the month of preg-

nancy will be correlated with the month of pregnancy.

Through tests of general anxiety and fear, significant correlation is revealed degree of fear by $P<.05$ level ($CR=1.98$) and level of general anxiety by $P<.005$ level ($CR=3.11$) is higher in the earlier stage of pregnancy. Hypothesis 4 is supported.

5. Hypothesis 5, 6, 7; General anxiety and fear of pregnancy will be cor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

Through general anxiety test and fear of pregnancy test, non-significant is revealed by $P>.05$ level. Hypothesis 5, 6, 7 are reject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Level of general anxiety and degree of fear of pregnancy is shown not to be correlated with variables of past experience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family factors except the month of pregnancy.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shown to be partially contra-correlated meagerly with genera anxiety and fear of pregnancy.

This study revealed contrasted results, in regard to presence of correlation between genera anxiety and fear of pregnancy, to other thesis. In this context, further studies under controlled environment is recommended